



〈橋流水不流〉

이 칼럼은 꿈이 품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그 메시지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어 2020년 초기에 〈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꿈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으나 오늘은 오랜만에 처음의 기획의 도로 돌아가 실제 꿈과 그 해석을 통해 내안의 하나님, 자성(自性)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이해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꿈은 저와 함께 자유율법을 공부 중인 어떤 분이 며칠 전 가져 온 꿈입니다. 평범한 필부(匹婦)의 꿈입니다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법(末法)의 옛 시대를 지나 새로운 영적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서 얼마 전 함께 보았던 석가모니의 꿈을 넘어서는 위대한 꿈들이 평범한 범부중생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곤 하는 것이지요

### 3월 17일 Y의 꿈

“내가 어떤 관광지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교 같다. 주변을 구경하며 걷고 있는데 근처에 낮은 산이 보인다. 산에 작은 나무들과 함께 사람들이 뻘뻘하게 서 있는 게 보인다. 나무와 사람이 비슷한 크기에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문득 알록달록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장식들처럼 느껴진다. 갑자기 그 산(山)이 통째로 사람들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장면 전환) 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진행되고 있다. 신부의 얼굴이 보인다. (장면 전환) 사람들이 하얀 네모 상자 위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누군가 ‘이 상자는 새로운 발명품이다.’라고 한다.”

자, 이제 꿈을 조목조목 잘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면1

“내가 어떤 관광지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교 같다. 주변을 구경하며 걷고 있는데 근처에 낮은 산이 보인다.”

#### 해석

꿈에서의 여행은 영적 여행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수학(修學) 여행’ 즉, 학문을 닦는 여행이라 했으니 이 여행은 영적인 공부의 여정입니다.

관광이라는 말 자체에도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관광(觀光)은 말 그대로 ‘빛을 본다’이니 내면의 빛,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관광지로의 수학여행’은 합치면 ‘내면의 빛을 찾아 떠난 영적인 공부의 여정’이 됩니다. 이 꿈의 배경과 방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장면2

“낮은 산에 작은 나무들과 함께 사람들이 뻘뻘하게 서 있는 게 보인다. 나무와 사람이 비슷한 크기에 나무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 해석

이 꿈의 배경이 되는 산은 꿈꾼 자의 내면입니다. 나무는 생명의 나무이며 하나님에 속한 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무로 가득 찬 숲은 근본적으로 에덴동산, 극락정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산은 나무와 사람이 비슷한 크기인데다가 나무보다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합니다.

사람과 나무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둘의 영적인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이며 나무보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꿈꾼 자의 내면이 아직 온전히 생명의 나무로 가득 찬 세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

적 생각과 입장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물이 반이나 빠진 걸까요. 반대로 반이 채워진 걸까요? 여기서 영적 상승이나 하강이나, 꿈이 가리키는 방향성을 가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의 이전 꿈들에서 그의 내면은 커다란 산, 지존의 산으로 나왔었습니다. 이후의 기도와 공부를 통해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꿈입니다. 따라서 산은 낮아지고 있고 생명의 나무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내 안의 마귀는 줄어들고 하나님과 그세계가 성장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이어 등장합니다.

#### 장면3

“...문득 알록달록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장식들처럼 느껴진다. 갑자기 그 산(山)이 통째로 사람들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 해석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장식들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는 심리적 관점, 보는 자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바로 전에는 인간이 나무와 비슷한 크기였으나 지금은 인간이 나무의 장식품처럼 보입니다. 즉, 나무가 주(主)가 되고 사람이 장신구, 객(客)이 된 모습입니다. 그의 세계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놀랍습니다. 결국 그 산이 사람들과 함께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 세상이 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橋流水不流, 흐르는 것은 다리보다..

사람들과 함께 산이 무너지는 이 장면은 부대사(傅大士 497~569)의 아름다운 선시(禪詩)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人從橋上過 人종교상과  
橋流水不流 교류수불류  
사람들이 다리 위를 지나는데

흐르는 것은 다리요,  
물이 아니더라.”

이 시(詩)에서 다리와 그 위의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이 구축한 세계이며 그 아래 흐르는 강물은 하나님의 신과 그 세계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견고하게 우뚝 솟은 다리가 기준이요 중심이며 강물은 가변(可變)이요 무상(無常)이어서 정처 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즉, 강물의 시점으로 보면 강물이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존재, 하나님 그 자체로서 ‘이제 그대로’ 그 자리에 면면히 존재하며 다리와 그 위의 인간들이 오히려 덧없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이 꿈과 부대사(傅大士) 시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다리’는 꿈의 낮은 산이요, ‘흘러가는 다리’가 ‘무너지는 산’입니다.

공히 주(主)와 객(客)이 바뀌는 즉, 주체영과 객체영이 자리를 바꾸는 장면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산을 저리로 옮기는 장면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천붕지탄(天崩地陷)의 현상이며, 하늘과 땅이 뒤바뀐 지천태(地天泰)괘의 구현입니다.

#### 장면4

“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이 진행되고 있다. 신부의 얼굴이 보인다.”

#### 해석

산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결혼식으로 바뀝니다. 현실에서라면 맥락 없는 전개라 하겠으나 꿈이라는 상징체계 안에서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런 흐름입니다.

산과 사람 즉, 기존의 나와 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장면은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의 등장입니다.

새 하늘은 새 신앙이요 새 땅은 새 신부입니다. 기존의 하늘이 무너졌으니 새신앙이 등장하고 기존의 땅이 무너졌으니 새신부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영적 상징과 꿈 <35>

### 부제: 산 무너지다

이 결혼 피로연은 주체영 자리, 신앙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마귀가 그 자리를 내주고 하나님이 주체영 자리, ‘나라는 의식’의 자리를 되찾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신부는 물론 꿈꾼 자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입니다.

#### 장면5

“사람들이 하얀 네모 상자 위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누군가 ‘이 상자는 새로운 발명품이다.’라고 한다.”

#### 해석

작은 구멍이 뚫린 하얀 네모 상자에는 몇 가지 상징이 숨어있습니다.

우선 ‘하얇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이 상자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을 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이 상자는 영적 결혼식 이후에 등장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상자에 뚫린 작은 구멍은 자연스레 열쇠 구멍을 연상시킵니다. 이 상자는 하나님의 열쇠로 열어아하는 봉인된 상자입니다.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지 만 인간은 열 수 없습니다. 묵시록 상의 7번째 인(印)을 때는 자가 아니면 열 수 없는 바로 그 봉인(封印)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자는 이 피로연의 주인공인 신앙이요, 그 신앙은 바로 7번째 인(印)을 때는 이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이 상자는 새로운 발명품이다.’ 라고 합니다. 이 상자에는 하나님이 봉인해 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혜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옛것을 그대로 반복 답습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새로운 내용과 말씀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매일 매일의 꿈과 그 영적 해석이 그렇듯 말입니다.

만일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혜가 자신에게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채 고갈되어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우물 옆에서 갈증으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결혼 선물로 주어진 것은 나라는 의식이라는 봉인을 뚫고 무의식의 감옥, 무저갱(無底坑)에서 건져 올린 공적영지(空寂靈知) 그 자체이며 하나님이 친히 봉인하고 친히 여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한 사람의 꿈에서 그 깊이를 가늠기 어려운 영적 내용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경지의 선각(先覺)들이나 엿볼 수 있었던 그 경계를 평범한 이들이 매일의 꿈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내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께, 아니 이미 각성한 이기신 하나님께 그 주인 자리를 내어주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과 지혜의 주인이 됩니다. 아니, 그 말씀과 지혜가 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하나님은 빛! God is light!

현재의 인체구조로는 영생활 수 없다.

▶It is impossible to live forever with the current human body structure.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점령당하기 전에는 이 우주는 온통 빛의 세계였다.

▶The Bible says that God is light. Before God was captured by the devil, this entire universe was light.

이 우주만 빛이 아니고 아담과 해와도 빛이었다.

▶Not only this universe was light, but Adam and Eve were also light.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사망의 신 마귀에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인간들의 모습인 남자, 여자의 몸으로 화하게 되었다.

▶However, because Adam and Eve were possessed by the devil, the god of death, they changed into the bodies of men and women, which are the present human form.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따라 괴로움 속에서 병들어 죽게 된다.

▶So, following the devil's disposition, people get sick and die in agony.

그런고로 현재의 인체구조로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랄 수가 없다.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hope for eternal life with the current human body structure.

인간 속에 마귀를 전멸시켰을 때 죽음이 없어지고 영원무궁토록 빛으로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기쁨과 희열 속에서 영광을 누리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When the devil is annihilated in human beings, death disappears, and humans can become light that shines forever and ever and a body of perfect freedom enjoying glory in joy and bliss.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 금주해야 오래 산다

흔히들 흡연은 백해무익한 암살자이며,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소량의 음주도 독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머니S의 보도에 따르면 한두 잔의 술도 암 발생요인이라고 한다. 머니S <암 발병 주변, 한두잔 술-전자담배 정말 괜찮나> 기사 중 중요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하는 것을 가정할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9%다. 남성이 암에 걸릴 확률은 39%, 여성은 33.9%로 추정된다.

서훈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은 대표적인 노화 질환이므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암 발생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암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질환이므로 암을 예방하고 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흡연과 음식이 각각 암 유발 원인의 30%를 차지한다. 나머지 20%는 감염, 5%는 알코올 때문이다.

기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전자담배가 있는데 최근 관련된 전자담배가 유행이다. 관련된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똑같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대신 배터리를 이용해서 약 300도로 가열하여 그 에어졸을 흡입하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맞다.

서 원장은 “기존담배의 유해성을 100이라 한다면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65다”라며 “덜 해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독약을 물을 타서 마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금주를 하는 것

이 좋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는데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둘 다 1군 발암물질이다.

서 원장은 “소량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술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위암 등 7-8종의 암 유발 원인이다”면서 “WHO도 가장 건강한 음주는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음주 가이드라인도 ‘소량의 술도 건강을 위해서는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선언했다”며 “국립암센터의 암예방 10대 수칙 중 과거에는 ‘술은 하루 한두잔 이내로 마시자’가 있었는데 2016년 이후 ‘암예방을 위해서 소량의 음주도 하지 말자’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머니S

**가장 건강한 음주는 한 잔도 마시지 않는 것**  
승리재단은 영생을 추구하는 곳이다.

따라서 신도들은 영생에 방해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최대한 자제한다. 금연은 물론이고 금주도 당연시한다. 더 나아가 화를 내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화를 내면 피가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 심리학자인 엘바 게이츠 박사가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마리의 쥐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몸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화가 얼마나 자신의 몸에 해가 되는 일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신 안에 사자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자마귀는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 사자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기 때문에 맹렬한 싸움과 피 튀기는 혈투를 벌여서 그를 죽여야 한다. 사자마귀는 절대로 금세 죽지 않는다. 영생하려면 금주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 이겨야 한다.\*